

『洪武正韻譯訓』 중국어 성모의 정·속음 대응 양상¹⁾

權恩善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博士過程)

esk0924@hanmail.net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성모체계 및 특성
-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조선의 역학정책은太祖 때부터 시작되어太宗대를 거쳐世宗대에 이어졌으며, 특히世宗대에는申叔舟·成三問 등 음운학자들과 함께 明나라太祖가 편찬시켰던 운서인『洪武正韻』(1375)에 한글로 중국어 자음을 주음한『洪武正韻譯訓』을 편찬하도록 하였다.²⁾ 또한黃瓚에게 가서 질정하게 하여 이를 널리 교육시킴으로 중국어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洪武正韻譯訓』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운서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1) 이 논문은 제2단계 BK21 사업(2006학년도)에 의하여 지원받아 작성된 것임

2) 세종께서는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왔으나 어음이 통하지 않아 반드시 통역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사실을 비추어보시고 무엇보다도『洪武正韻』을 번역하라고 명령하시었다.

於是以前東國世事中華而語音必賴傳譯首命譯洪武正韻。 『洪武正韻譯訓序』

『洪武正韻』은 표준운서로서 평가를 받지 못했다.³⁾ 하지만, 『洪武正韻譯訓·序』에 보면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에 事大하여 왔으나 어음이 통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통역에 의지해야 함을 헤아리시고, 먼저 『洪武正韻』을 번역하라 명하셨다.⁴⁾

吾東國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긴다. 표준운서로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洪武正韻』이 왜 정확한 중국어음을 배우기 위해 역음되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洪武正韻』이 중국의 표준음을 반영한 운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洪武正韻』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시각들은 『洪武正韻譯訓』에 까지 영향을 미쳐 『洪武正韻譯訓』 또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뿐만 아니라 1책(권1·2)의 낙질로 인하여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복원과 부분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왔다.⁵⁾

3) 자세한 내용은 김태성, 「洪武正韻譯訓·序 釋補」, 『中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1, 59-60쪽, 권은선, 「『洪武正韻譯訓』 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6, 7-10쪽 참조.

4) 본 논문에서 『洪武正韻譯訓』에 반영된 음운변화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각 역음서의 「서문」이나 「법례」를 인용하기로 하고 인용문 번역에 있어서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김무림,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서울: 월인, 1999과 김태성, 「洪武正韻譯訓·序 釋補」, 『中國研究』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1, 유재원, 「『伍倫全備診解』 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2을 참고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5) 지금까지 『洪武正韻譯訓』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접연구

이승녕, 「洪武正韻譯訓의 연구」, 『震檀學報』 20, 震檀學會, 1959.

성원경, 「東國正韻과 洪武正韻譯訓음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12, 건국대학교, 1970.

정연찬, 『洪武正韻譯訓 연구』, 서울: 一潮閣, 1972.

박병채, 『洪武正韻譯訓의 新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김무림, 『洪武正韻譯訓 연구』, 서울: 월인, 1999.

김태성, 「洪武正韻譯訓·序 釋補」, 『중국연구』, 한국외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1.

(2) 간접연구

김완진, 「續添洪武正韻에 대하여」, 『震檀學報』, 震檀學會, 1966.

『洪武正韻譯訓』은 『洪武正韻』의 반절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代表字의 음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洪武正韻譯訓』의 성모체계를 살펴보고 얻어진 성모의 특징들은 『洪武正韻』 연구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을 재고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자료와 함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藏本인 明版 『洪武正韻』 隆慶本을 저본으로 복원작업을 거친 고려대학교 影印本을 대상으로 『洪武正韻譯訓』 성모의 정음과 속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II. 성모체계 및 특성

본 장에서는 『洪武正韻譯訓』의 성모를 牙音, 舌音, 唇音, 齒音, 喉音의 五音으로 나누는 후, 정음의 성모를 기준으로 정음의 성모에 대한 속음 성모를 분류하고 각각의 대응 관계 속에 나타난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洪武正韻譯訓』의 중국어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한글자모의 음가가 학자들마다 재구한 양상이 다르므로 기존 학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강신향(1973:162-169)을 참고 하여 나타내기로 한다.⁶⁾

1. 牙音

牙音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牙音에 속하는 자모로는 見·溪·群·疑母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正音으로는 /ㄱ/, /ㅋ/, /ㆁ/, /ㅇ/가 있으며, 俗音으로는 見母의 /ㄱ/ 溪母의 /ㅋ/과 /ㄱ/ 群母의 /ㄱ/疑母의 /ㅇ/, /ㅇ/가 있다.

이동립,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의 비교」, 『동국대학교 논문집』 5, 동국대학교, 1968.

강신향, 『四聲通解연구』, 서울: 신아사, 1973.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초기관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6) 각 학자별 음가 재구 양상은 권은선, 「『洪武正韻譯訓』 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6, 19-20쪽 도표 참고.

2) 見母에 해당하는 正音은 148字인데, 이중 57字가 俗音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群母에서는 正音56字 중 18字가 俗音에 그대로 반영되어 대체로 正·俗音이 가지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3) 疑母에 해당하는 正音은 72字인데, 이중 5字만 俗音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42字는 正音과 다른 俗音을 가지고 있다.

【표1】은 正音과 俗音이 다르게 나타난 例字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⁷⁾

【표1】 정·속음 異音表 (아음: 영성모화)

자모	운	예 자	정음	속음
疑	卷第03平聲08眞	垠	은	은
疑	卷第03平聲09寒	岷	윈	윈
疑	卷第03平聲10刪	顏	얀	얀
疑	卷第03平聲10刪	頑	완	완
疑	卷第03平聲10刪	虬	얀	얀
疑	卷第04平聲13爻	敖	ㅇ ㅏ ㅁ	얏
疑	卷第04平聲14歌	莪	어	어
疑	卷第04平聲14歌	訛	위	위
疑	卷第05平聲15麻	牙	야	야
疑	卷第06平聲19尤	隅	ㅇ ㅡ ㅁ	음
疑	卷第06平聲20侵	吟	ㅇ ㅣ ㅁ	인
疑	卷第06平聲21覃	喾	ㅇ ㅏ ㅁ	얀
疑	卷第06平聲22鹽	儉	염	연
疑	卷第08上聲08軫	听	인	인
疑	卷第08上聲08軫	眼	?	?
疑	卷第09上聲13巧	齧	ㅇ ㅏ ㅁ	얏

7) 각 표의 例字에서 “?”로 표기된 것은 원문에 글자가 있으나 잘 알아볼 수 없는 글자에 표시하였고, “●”로 표시한 것은 원문에 글씨가 없는 글자들에 한하여 표시하였다.

疑	卷第09上聲14哿	我	어	어
疑	卷第09上聲14哿	●	위	위
疑	卷第09上聲15馬	雅	야	야
疑	卷第09上聲15馬	瓦	와	와
疑	卷第09上聲19有	偶	호 一 ㅁ	응
疑	卷第09上聲20寢	吟	호 ㅁ	인
疑	卷第09上聲21感	頷	함	안
疑	卷第09上聲22琰	謙	염	연
疑	卷第11去聲06泰	睚	애	애
疑	卷第11去聲08震	愁	인	인
疑	卷第12去聲09翰	岸	언	안
疑	卷第12去聲09翰	玩	원	원
疑	卷第12去聲10諫	亂	환	완
疑	卷第12去聲10諫	鴈	한	안
疑	卷第12去聲13效	樂	호 ㅓ ㅁ	양
疑	卷第12去聲13效	傲	호 ㅓ ㅁ	알
疑	卷第12去聲14箇	餓	어	어
疑	卷第13去聲15禡	訝	야	야
疑	卷第13去聲15禡	●	와	와
疑	卷第13去聲19宥	偶	호 一 ㅁ	응
疑	卷第13去聲20沁	吟	임	인
疑	卷第13去聲22黠	釅	염	연
疑	卷第14入聲02質	仵	인	잉
疑	卷第14入聲02質	兀	호 ㅓ ㅁ	응
疑	卷第14入聲04轄	藥	호 ㅓ ㅁ	양
疑	卷第16入聲07陌	域	호 ㅓ ㅁ	잉

【표1】에서 알 수 있듯, 牙音계열 聲母의 俗音은 疑母(호)가 喻母化(호) 즉 호→호

(零聲母)로 된 것이 平聲 13개 上聲 11개 去聲 14개 入聲 4개, 약 57%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疑母가 零聲母化 한 결과인가? 둘째, ‘ㅇ’이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가장 유사한 ‘ㅇ’으로 대체된 것인가? 疑母와 관련하여 申叔舟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四聲通攷·凡例』 제 6조

本韻의 疑·喻 두 자모의 글자들은 서로 많이 섞여 있다. 이제 해당 글자 아래 옛 韻을 따라 喻母이면 다만 ‘ㅇ母’라 하고 疑母이면 다만 ‘ㅇ’라고 하여 구별 하였다. 本韻疑喻母諸字多相雜, 今於逐字下從古韻, 喻則只書ㅇ母, 疑則只書ㅇ母以別之.

강식진(1985:72-73)은 『翻譯老乞大·朴通事』 右音 및 위의 기록에 근거하여 『四聲通攷』 시기에 喻母와 혼용되던 疑母가 『翻譯老乞大·朴通事』 시기에는 완전히 零聲母化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의 소멸 시기에 대해서 이기문(1961:11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기문(1961:114)

‘ㅇ’은 15세기 중엽의 문헌들에서는 초성으로 자주 쓰였으나, 그 예가 점차 줄어 16세기 초엽에는 겨우 몇 예가 보이다가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ㅇ’은 종성에만 쓰이는 문자가 되었다.

즉, ‘ㅇ’은 16세기 초엽 이후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는 것이다.

‘ㅇ’에 대해서 『訓民正音·解例·制字解』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訓民正音·解例·制字解』

다만 牙音인 ‘ㅇ’은 비록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소리가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는 ‘ㅇ’과 비슷하므로 韻書에서는 ‘疑(母)’와 ‘喻(母)’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唯牙之ㅇ, 雖舌根閉喉, 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訓民正音의 제자 원리로 볼 때, 각각 疑母와 喻母를 나타내던 ‘ㅇ’과 ‘ㅇ’의 음가는 분명 다른 것이다. 그러나 『訓民正音·解例·制字解』에 의하면 中國語音의 경우 疑

母와 喻母는 실질적으로 이미 매우 가까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崔世珍도 『訓蒙字會』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訓蒙字會·諺文字母』

다만 ‘ㅇ’의 초성은 ‘ㅇ’자의 음과 世間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으므로 세간에서 쓰는 초성으로는 모두 ‘ㅇ’음을 사용한다. 만일 윗 글자에 ‘ㅇ’음 종성이 있으면 아래 글자는 반드시 ‘ㅇ’음을 초성으로 쓴다. ‘ㅇ’자의 음은 코로 소리를 내고 ‘ㅇ’자의 음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로 가볍고 빈 소리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비록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 중국어음에 있어서 ‘ㅇ’음 초성은 혹은 尼音과 같아졌거나 혹은 ‘ㅇ’과 ‘ㅇ’이 서로 섞여 구별이 없게 되었다.

唯ㅇ之初聲, 與ㅇ字音俗呼相近, 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 若上字有ㅇ音終聲, 則下字必用ㅇ音爲初聲也. ㅇ字之音, 動鼻作聲, ㅇ字之音, 發爲喉中, 輕虛之聲而已. 故初聲雖稍異, 而大體相似也, 漢音ㅇ音初聲, 或歸於尼音, 或ㅇ,ㅇ相混無別.

위의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듯 ‘ㅇ’은 초성에 쓰이기는 하나 어두 초성으로는 쓰이지 않고 어중 초성으로만 쓰인다. 즉 어중의 ‘ㅇ’은 앞 음절의 초성인 ‘ㅇ’의 연장일 뿐이지 단독으로 음을 구성하던 것은 아니었다.

이 현상에 대해 강신항(1987:217)은 중국어음에 있어서의 ㅇ음이었던 것은 [n]이 되었거나 [∅]가 되었다고 하였다.

즉, 국어에서도 실질적으로 ㅇ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중국어음에서도 疑母는 일부[n]化 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零聲母化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4) 『洪武正韻譯訓』 편찬 당시 正音體系 내에 존재하던 濁音聲母는 무기음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俗音의 영향으로 점차 무기음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牙音계열에서 보이는 무기음화 현상은 【표2】에서 제시한 한 개뿐이다.

8) 유재원, 「『伍倫全備諺解』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2, 113-114쪽 참조.

【표2】 정·속음 異音表 (아음: 무기음화)

자모	운	예자	정음	속음
溪	卷第07上聲01董	恐	콩	궁

2. 舌音

舌音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舌音에 속하는 자모로는 端母·透母·定母·泥母와 半舌音 來母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端母의 正音으로는 /ㄷ/, 透母의 正音으로는 /ㄸ/, 定母의 正音으로는 /ㄸ/, 泥母의 正音으로는 /ㄴ/가 있으며, 半舌音 來母의 正音으로는 /ㄹ/이 있고 俗音으로는 端母에 대응하는 /ㄷ/, 透母의 /ㄸ/과 定母의 /ㄸ/, /ㄸ/泥母의 /ㄴ/, 來母 /ㄹ/이 있다.

2) 舌音에서 正音 표시 字는 총 246字 인데, 이중 한 글자가 正音과 다른 俗音을 가지고 있다.

3) 半舌音에서 正音 표시 字는 총 89字인데, 이중 34字가 俗音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4) 定母에서는 正音 65字 중, 24字는 俗音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1字는 正音과 다른 俗音을 가지고 있다. 正音과 俗音이 다르게 표기된 예는 【표3】 과 같다.

【표3】 정·속음 異音表 (설음: 청음화)

자모	운	예자	정음	속음
定	卷第09上聲1 8梗	挺	땡	팅

『洪武正韻譯訓』 舌音 定母에서는 正音은 /땡/으로 발음되고, 俗音은 /팅/과/

팅 / 두 가지로 발음된다. 定母의 25개의 俗音 중 ‘挺’만 /팅/으로 발음되어 定母가 全淸音化하지 않고 透母化 하여 次淸音化(ㄷ→ㄷ)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脣音

脣音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脣音은 重脣音 幫·滂·並·明母 4개와 脣輕音 非·奉·微母 3개 총 7개의 聲母가 있다. 대응하는 正音으로는 /ㅂ/, /ㅍ/, /ㅃ/, /ㅍ/, /ㅃ/, /ㅍ/, /ㅃ/이 있으며, 俗音은 幫母의 /ㅂ/滂母의 /ㅍ/並母의 /ㅃ/, /ㅍ/明母의 /ㅍ/非母의 /ㅃ/奉母의 /ㅃ/微母의 /ㅍ/이 있다.

2) 脣音은 正音 표시 자가 총 301字인데, 이중 【표4】에 제시한 한 字만 正音과 다른 俗音을 가지고 있다.

【표4】 정·속음 異音表 (순음: 청음화)

자모	운	예자	정음	속음
並	卷第16入聲0 7陌	關	백	핑

脣音 並母 중 ‘關’는 正音이 /ㅃ/인 반면, 俗音은 /ㅍ/으로 표시되어 있다. 並母에 나타난 俗音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박병채(1983:79-80)는 근대 북방음에서 주로 濁平音은 次淸音化하고 全濁音 仄聲字는 全淸音化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俗音은 中原音韻의 실제음을 보이는 극소수에 속하는 예로 탁측성인 並母가 全淸音化하지 않고 次淸音化 하여 때로는 次淸音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김무림 (1992:79-80)에서는 근대 북방음에서 全濁音 仄聲字는 주로 全淸音化 하는 것에는 박병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먼저 『中原音韻』에서 유일하게 이 字에만 俗音이 注記된 까닭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洪武正韻』 자체에서는 ‘亦作僻’로

주기)되어 있고 ‘僻’는 滂母(픽)와 並母(뵉)의 두 음을 갖고 있는데, 이는 『韻會』에서도 ‘入聲 *벽 毗亦切.....關(通作僻)’같이 주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關은 僻과 통해서 쓰이면서 並母와 滂母의 두 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탁음의 차청음화의一端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3) 『洪武正韻譯訓·凡例』 제4조

脣輕音 二母의 자는 本韻과 蒙古韻 에서는 섞여서 하나가 되었다. 또 중국의 현실음에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제 敷母를 非母에 합한다.

脣輕聲非敷二母之字 本韻及蒙古韻混而一之 且中國時音亦無別 今以敷歸非.

『廣韻三十六字母之圖』에서는 脣音을 重脣音과 脣輕音 두 가지로 엄격히 구분하였지만 『洪武正韻三十一字母之圖』에서는 脣音을 重脣音과 脣輕音으로 나누되 『廣韻』의 重脣音 幫·滂·並·明 네 성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脣輕音에는 非·敷母가 병합되어 奉·微와 함께 세 개의 성모만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한자음 『蒙韻』 및 당시의 時音에 근거하여 非·敷를 병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洪武正韻』이 단순히 古韻 혹은 전통 韻書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님을 반증해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脣音 중 重脣音 에는 幫·滂·並·明母 4개와 脣輕音에는 非·奉·微母3개 총 7개 성모가 있다.¹⁰⁾

4) 脣音에서 脣輕音은 訓民正音 23초성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음으로, 『洪武正韻』 31자모체계를 역음 하기 위해 非·奉·微의 역음을 각각 ㅂ, ㅍ, ㅍ로 새롭게 고안해 내었다.

다음에 제시한 기록들은 脣輕音의 발음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① 『洪武正韻三十一字母之圖』

ㅂ을 발음할 때 입술을 합치려다 말고 날숨을 내면서 발음하면 ㅍ이 된다. 그래서 ㅂ 밑에 빈 동그라미를 붙였으니 ㅍ와 ㅍ도 마찬가지로이다.

爲ㅂ之時 將合勿合吹氣出聲爲ㅍ 故加空圈於ㅂ下 ㅍㅍ도 ㅍ도 亦同.

9) 入聲 7陌 뵉 關 毗亦切 俗音뵉 亦作僻

10)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초기관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72쪽 참고

②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

입술을 합쳐 내는 소리는 ㅂ이니 이를 脣重音이라 하고 입술을 합치려다 말고
날숨을 내면서 발음하면 ㅃ이 되니 이를 脣輕音이라 한다. 글자를 만듦에 ‘ㅂ’아래 빈
동그라미를 붙인 것은 곧 입술을 비워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ㅃ’과 ‘ㅃ’의 두 字母도
마찬가지이다.

合脣作聲ㅂ 而曰脣重音 爲ㅂ之時 將合勿合吹氣出聲爲ㅃ 而曰脣輕音 制字加
空圈於ㅂ下者卽虛脣出聲之義也 ㅃㅃ二母亦同.

이처럼 조선의 역학정책의 일환으로 편찬된 『洪武正韻譯訓』은 역음을 위해 23자
모체계에 없던 글자들을 새롭게 고안해 내고 그 글자의 발음방법 또한 자세히 기록하
여 놓았다. 이는 역학서 편찬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학자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
는 부분이라 하겠다.

4. 齒音

齒音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齒音은 齒頭音 精·淸·從·心·邪母와 正齒音 照·穿·牀·審·禪母, 半齒音
日母가 있는데 각 聲母에 대응하는 正音으로는 齒頭音 精母/ㄷ /, 淸母/ㄷ /, 從母
/ㄷ /, 心母/ㄷ /, 邪母/ㄷ /가 있으며 正齒音 照母/ㄷ /穿母/ㄷ /牀母/ㄷ /審
母/ㄷ /禪母/ㄷ /와 半齒音 日母/ㄷ /가 있다.

俗音으로는 齒頭音 精母/ㄷ /, /ㄷ /, 淸母/ㄷ /, 從母/ㄷ /, 心母/ㄷ /, 邪母/
ㄷ /가 있으며, 半齒音 照母/ㄷ / /ㄷ /穿母/ㄷ / /ㄷ /牀母/ㄷ /審母/ㄷ /禪母
/ㄷ /와 半齒音 日母/ㄷ /가 있다.

2) 齒頭音과 正齒音의 正音 표시 字는 각각 총 353字와 390字인데, 이중 한 글자씩
은 正音과 다른 俗音을 가지고 있다.

3) 齒音에서 正音과 俗音이 다르게 표기된 例字를 표로 나타내면 【표5】와 같다.

【표5】 정·속음 異音表 (치음: 청음화)

자모	운	예자	정음	속음
精	卷第14入聲01 屋	蹙	ㅈㅍㅅ	ㅈㅍㅇ
照	卷第13去聲21 勘	蘸	ㅈㅅ	ㅈㅅ
穿	卷第09上聲20 寢	審	ㅈㅅ	ㅈㅅ

齒音계열의 俗音에서는 특이하게 次淸音이 全淸音化하고 있는 예가 있다. 이는 때로는 次淸音이 全淸音化 함을 보여주는 例이다.

4) ① 『四聲通攷·凡例』 제5조

무릇 齒音에 있어서 치두는 혀를 들어 이에 대니 그 소리가 얇고 正齒는 혀를 말아 잇몸에 대니 그 소리가 깊다. 우리나라 齒音 ‘ㅈ·ㅅ·ㅈ’은 齒頭와 正齒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訓民正音에는 齒頭와 正齒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齒頭는 ㅈ·ㅅ·ㅈ 으로 구별하고 正齒는 ㅈ·ㅅ·ㅈ 로 구별한다.

凡齒音 齒頭則擧舌點齒 故其聲淺 整齒則卷舌點齶 故其聲深 我國齒聲ㅈ·ㅅ·ㅈ 在齒頭整齒之間 於訓民正音無齒頭整齒之別 今以齒頭爲 ㅈ·ㅅ·ㅈ 以整齒爲 ㅈ·ㅅ·ㅈ 以別之.

② 『訓民正音·諺解』

中國소리엿 니쏘리는 齒頭와 正齒에 곁히요미 잇느니 ㅈㅅㅈㅅㅈㅅ 字는 用於齒頭호고 (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열보니 헛그티 웃닛머리에 다믄나라) ㅈㅅㅈㅅ 字는 用於正齒호느니(이 소리는 우리나라 소리에서 두터보니 헛그티 아랫 닛므유메 다믄나라)

①,②에 기록된 설명으로 보아, 당시 중국어(15세기)의 齒音에는 齒頭音과 正齒音이 있었으나, 국어에는 齒音이 한 종류만 있었기에 때문에 訓民正音에 규정된 국어의 齒音인 ㅈ,ㅅ,ㅈ,ㅅ,ㅈ을 齒頭音은 왼쪽 획을 길게 하고 正齒音은 오른쪽 획을 길게 늘어

어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洪武正韻』의 正齒音은 中古音의 知系, 照系, 莊系의 세 음계로부터 발달하였는데 藤堂明保(1957:167-172)에 따르면 이들의 합류는 이미 宋代 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아래 기록을 보면 『韻會』에는 이미 正齒音 照·穿·牀母의 통합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① 『四聲通攷·凡例』 제3조

무릇 舌上音은 혀 허리가 잇몸(경구개)을 스치므로 그 소리 내기가 어려워 자연스레 正齒音에 속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韻會』에서는 知·徹·澄·孃을 照穿·牀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中國時音은 娘母만을 泥母에 귀속시키고 있고, 또 本韻(洪武正韻)에서도 泥母와 娘母를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知·徹·澄·孃를 照·穿·牀母에 娘母를 泥母에 귀속시킨다.

凡舌上聲以舌腰點齶 故其聲難而自歸於正齒 故韻會以知徹澄孃歸照穿牀禪 而中國時音獨以孃歸泥 且本韻混泥孃而不別今以知徹澄歸照穿牀 以孃歸泥.

② 『廣韻三十六字母之圖』

舌上音은 우리나라의 발음과 비슷하고 正齒音과는 같지 않으나 漢音에서는 저절로 正齒音과 같아졌다.

舌上音, 卽同本國所呼似, 與正齒音不同, 而漢音自歸於正齒.

③ 『洪武正韻三十一字母之圖』

지금 쓰고 있는 漢音은 ‘知’를 ‘照’에 ‘徹’을 ‘穿’에 ‘澄’을 ‘牀’에 ‘孃’을 ‘泥’에 ‘敷’를 ‘非’에 각각 아우르고 쓰지 않으므로 이제 또한 그것을 쓰지 않았다.

時用漢音. 以知併於照, 徹併於穿, 澄併於牀, 孃併於泥, 敷併於非而不用. 故今亦去之.

6) 『洪武正韻譯訓』에서 半齒音 日母는 正音과 俗音에서 모두 ‘△’으로 나타나고 있다.

5. 喉音

喉音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喉音에는 影·曉·匣·喻母가 있고 각 聲母에 대응하는 正音으로는 影母/ㄱ/ 曉母/ㅎ/匣母/ㅎ/喻母/ㅇ/가 있다. 俗音으로는 影母/ㄱ/ 曉母/ㅎ/, /?/匣母/ㅎ//ㅇ//ㄹ//ㄱ//ㄱ//?/喻母/ㅇ//ㄷ//ㅎ/가 있다.

2) 喉音중 正音에 해당하는 글자는 총 386字인데, 이중 10字는 俗音을 따로 가지고 있다.

3) 喉音계열 중 正·俗音이 다른 자는 다음과 같다.

【표6】 정·속음 異音表 (후음: 기타현상)

자모	운	예자	정음	속음
曉	卷第08上聲0 9부	罕	헌	?
匣	卷第08上聲0 6解	夥	해	로
匣	卷第08上聲0 9부	阜	헌	?
匣	卷第09上聲1 5馬	蹀	화	파
匣	卷第09上聲1 8梗	卅 ¹¹⁾	ㅎ ㄱ ㅎ	경
匣	卷第03平聲0 9寒	桓	헌	원
匣	卷第08上聲0 9부	緩	헌	?
喻	卷第11去聲0	叡	위	쉬

	7隊			
喻	卷第16入聲0 7陌	額	익	ㅇ ㅇ
喻	卷第16入聲0 7陌	逆	익	ㅇ ㅇ

예자 ‘夥’의俗音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로’가 맞는지 불분명하다. 이 현상에 대해 박병채(1983:206)는 『中原音韻』에서 匣母와 來母의 相變을 찾아 볼 수 없고 『四聲通解』에도 별 다른 언급이 없기에 어느 지역의 방언음을 俗音으로 처리한 듯 싶다고 하였다.

예자 ‘蹠’의 俗音은 전탁음인 群母로 俗音을 보이고 있는 예이다.

예자 ‘卅’은 『韻會』나 『洪武正韻譯訓』의 ‘礦(역훈 穹)’ 아래에 ‘亦作卅’으로 주기 되어 있고 현대음도 성모가 [k]이므로 이 俗音이 현대음에 까지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叡’또한 현대음에서 日母 계열의 음을 유지하고 있다.¹²⁾

예자 ‘桓’의 俗音 ‘원’은 喉音과 牙音의 相變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자 ‘額’과 ‘逆’은 喻·疑母 혼용의 역현상을 반영하였다.

4) 影母의 正音과 俗音에 반영된 ㅇ에 대해 『訓民正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訓民正音·解例·合字解』

초성의 ㅇ은 ㅇ과 서로 비슷하여 우리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

初聲之ㅇ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

ㅇ과 실제 음가가 매우 비슷해졌으면서도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이는 ㅇ과는 대조적으로, 초성에서의 ㅇ은 ㅇ과 구별 없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은 『訓蒙字會·諺文字母』의 27자모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喉音 ㅇ가 음성적 가치(또는 역할)를 지닌 표기이지만 단독음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15세기 국어의 음운체계에서 제외된다.

11) 김무림, 『洪武正韻譯訓 연구』, 서울: 월인, 1999. 113쪽에서 예자 참고.

12) 김무림, 『洪武正韻譯訓 연구』, 서울: 월인, 1999. 113쪽에서 예자 참고.

5) 가. 訓民正音의 喉音

불청불탁 전청 차청 전탁

○ ㅎ ㅎ ㅎ

最不厲 稍厲 厲 ㅎ之凝

나. ‘ㅇ’에 대한 訓民正音의 설명

①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象喉形(制字解)

② ㅇ에서 ㅎ, ㅎ에서 ㅇ으로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획을 더한 뜻(이치)은 같다.

○而ㅎ. ㅎ而ㅇ. 其因聲加畫之義皆同(制字解)

③ 다만 어금닛소리의 ㅇ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는 비음이지만 그 소리가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疑母와 喻母가 많이 서로 혼용되고 있다.

唯牙之ㅇ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制字解)

④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국어의) 중성이 음을 이룰 수 있다.

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終聲解)

⑤ 초성의 ㅎ은 ㅇ와 서로 비슷해서 우리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

初聲之ㅎ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合字解)

위의 예들은 ‘ㅇ’의 음성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③과 나-⑤는 『洪武正韻』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疑母의 喻母化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影母의 喻母化는 이에 미치지 못함을 반영한 것으로 喻母와 影母가 중국어에서는 상당히 변별되나 국어에서는 변별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당시 중국어에서 疑母의 喻母化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④는 ‘ㅇ’이 종성으로 쓰일 수 없음을 말한 것으로 단독 음성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나-⑤는 국어음에서 ‘ㅇ’과 ‘ㅇ’의 相似와 관계가 있는데 ㅇ(喻), ㄹ(影), ㅇ(疑)의 셋의 관계가 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같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Ⅲ. 나오는 말

조선시대의 역학 자료들은 한글이라는 표음문자로 중국어 발음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중국어 음운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국어 연구나, 결론 부분에 대한 복원 작업을 시도, 부분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洪武正韻譯訓』 성모 음운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을 고려한 객관성 있는 분석에 그 목적을 두었다.

『洪武正韻譯訓』 성모의 정·속음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 1) 聲母의 경우 正音에 사용된 訓民正音 자모는 총 31개·31종류, 俗音은 총 45개·31종류이다.
- 2) 正音과 俗音이 다른 글자는 牙音에서 43字, 喉音에서 8字, 齒音에서 3字를 제외하면 舌·脣音에서는 각 한 자씩으로 대부분의 俗音 역시 正音과 같은 聲母를 쓰고 있다.
- 3) 疑母의 零聲母化이다. 牙音계열 성모의 俗音은 疑母(ㅇ)가 喻母化(ㅇ) 즉 ㅇ → ㅇ (零聲母)로 된 것이 平聲 13개 上聲 11개 去聲 14개 入聲 4개, 약 57%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 4) 『洪武正韻譯訓』 편찬 당시 正音체계 내에 존재하던 탁음성모는 청음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俗音의 영향으로 점차 청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牙音계열에서 보이는 청음화 현상은 한 개뿐 이다.
- 5) 『洪武正韻譯訓』 舌音 定母에서 正音 /땡/은 /땡/과/팅 /두 가지의 俗音을

가지고 있다. 定母의 25개의 俗音 중 ‘挺’만 /팅/으로 발음되어 定母가 全清音化하지 않고 透母化 하여 次清音化(ㄷ→ㄷ)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 齒音계열의 俗音 중에서 특이하게 차청음이 전청음화하고 있는 예가 있다. 이는 때로는 차청음이 전청음화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洪武正韻譯訓』에 나타난 正·俗音의 대응관계를 표로 제시하여 본 논문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표7】 『洪武正韻譯訓』의 성모 정·속음 대응관계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全清		全濁	
	정음	속음	정음	속음	정음	속음	정음	속음	정음	속음	정음	속음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牙音	ㄱ[k]	ㄱ[k]	ㅋ[kʰ]	ㅋ[kʰ] 8.5	ㄱ[k]	ㄱ[k]	ㅇ[ŋ]	ㅇ[ŋ] 0.2				
	26.3	10.1	30	ㄱ[k] 0.2	9.9	3.2	12.8	ㅇ[∅] 7.5				
舌頭音	ㄷ[t]	ㄷ[t]	ㅌ[tʰ]	ㅌ[tʰ]	ㄷ[d]	ㄷ[d] 5.2	ㄴ[n]	ㄴ[n]				
	13.7	4.9	12	5.2	12	ㅌ[tʰ] 0.2	1.5	5.2				
半舌音							ㄹ[l]	ㄹ[l]				
							19.1	7.3				
重脣音	ㅍ[p]	ㅍ[p]	ㅑ[pʰ]	ㅑ[pʰ]	ㅍ[b]	ㅍ[b] 4.7	ㅁ[m]	ㅁ[m]				
	15.3	6.8	10.8	4.2	12.7	ㅑ[pʰ] 0.2	16.2	6.6				
輕脣音	ㅍ[f]	ㅍ[f]			ㅍ[v]	ㅍ[v]	ㅍ[w]	ㅍ[w]				
	5.9	2.4			5.6	3.1	4.2	1.2				

참고문헌

- 강식진, 「翻譯老乞大朴通事の 右音 聲母體系」, 『中國語文論集』 3, 釜山 慶南中國語文學會 1986.
- , 「中國語 聲母의 14c 以後 變化 연구」, 『中國語文論集』 5, 釜山 慶南中國語文學會, 1989.
- 강신항, 『국어학사』, 서울: 보성문화사, 1982.
- , 「사성통해 범례에 대하여」, 세종학연구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 , 『四聲通解研究』, 서울: 신아사, 1973.
- , 「齒音과 한글 表音」,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 , 『한국의 역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 『한국의 운서』, 서울: 태학사, 2000.
- ,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서울: 일조각, 1972.
- , 『訓民正音研究』,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1999.
- 권은선, 「『洪武正韻譯訓』 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김무림, 『국어의 역사』,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 「사성통고 범례의 고찰」, 『주시경학보』 13, 주시경연구소, 1992.
- ,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서울: 월인, 1999.
- 김완진, 「續添洪武正韻에 대하여」, 『震檀學報』 29·30, 震檀學會, 1966.
- 김태성, 「15세기 조선에서 바라본 근대 중국어 음운체계」, 『언어와 언어학』 28,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01.
- , 「조선 申叔舟의 중국어관」, 『중국언어연구』 제14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2.
- , 「洪武正韻譯訓·序 釋補」, 『中國研究』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1.
- 박동규, 『국어연구사』,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 박병채, 『국어발달사』, 서울: 세영사, 2004.
- , 『洪武正韻譯訓 新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 박현규, 「『洪武正韻』의 제본에 대한 조사 연구」, 『漢文學論集』 8, 근역한문학회, 1990.
- 濮之珍, 『中國言語學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성원경, 「東國正韻과 洪武正韻譯訓음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12, 건국대학교, 1970.
- 世宗大王, 『訓民正音』, 1443, 서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影印, 2003.
- 申叔舟 等, 『洪武正韻譯訓』, 1455,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影印, 1974.
- 심소희,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관-정음(正音) 사상의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0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0.
- 樂韶鳳 等, 『洪武正韻』,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安奇燮, 「朝鮮時代 對 漢語 譯音書의 正音·俗音 성격의 再考 - 序·凡例上 기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10, 1988.
- 王力, 『漢語音韻』, 南京: 中華書局, 1963;2002.
- 유재원, 「『伍倫全備診解』中國語 音韻體系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2.
- _____, 「조선시대의 두 가지 중국어음 표기 체계」, 『중국학연구』 23, 중국학연구회, 2002.
- 王力著. 李鍾振·李鴻鎮 共譯, 『中國言語學史』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1986.
- 우민섭, 『중세음운연구』,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 應裕康, 「洪武正韻聲母音值之擬訂」, 『中華學苑』 6, 1970.
- _____, 「洪武正韻聲母音值之擬訂」, 『漢學論文集』, 1970.
- 이강로, 「『四聲通解』에 관련된 운서의 비교」, 『한글』 249, 한글학회, 2000.
- _____, 『四聲通解의 음운학적 研究』,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0.
- 이기문, 『國語史概說』, 서울: 탑출판사, 1961;2002.
- 이동림,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의 비교」, 『동국대학교 논문집』 5, 동국대학교, 1968.
- 이승녕, 「洪武正韻譯訓의 연구」, 『震檀學報』 20, 震檀學會, 1959.

- 李新魁 著, 박만규 譯, 『中國聲韻學概論』, 서울: 대광문화사, 1990.
-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초기관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이익섭, 『國語學概說』, 서울: 학연사, 1986.
- 이재돈, 『中國語音韻學』, 서울: 살림, 1994.
- 이환주·이돈주·신상순, 『訓民正音의 이해』, 서울: 한신문화사, 1988.
- 정경일, 『한국운서의 이해』, 서울: 아카넷, 2002.
- 정광, 『譯學書研究』, 서울: 제이앤씨, 2002.
- 정연찬, 『洪武正韻譯訓 研究』, 서울: 一潮閣, 1972.
- 周德清, 『中原音韻』, 1324,臺北: 藝文印書館, 1979.
- 朱星一, 「15、16世紀朝漢對音研究」,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00.
- 채영순, 「조선대역한음 음운특징의 재고」, 『中國學報』 42, 한국중국학회, 2002.
- 崔世珍, 『四聲通解』, 奎章閣所藏本, 1517 .
- 崔玲愛, 「洪武正韻聲類考」, 『人文科學』 44,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80.
- , 「洪武正韻研究」, 臺灣大學, 박사학위논문, 1975.
- 河惠丁, 「朝鮮韻書의 正音觀 分析」, 『東洋古典研究』 8, 東洋古典學會, 1997.
- 허웅, 『국어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1985:1991.

부록

【표1】 아음의 정·속음 대조표

자모	정음	예자	속음	예자
見	ㄱ [k] (148 字)	公居孤乖該愧規鈞巾昆根 官關姦堅涓交高歌戈過嘉瓜 薑姜江岡光觥京鳩鈎拱舉古 柺改詭緊攏袞管簡繭吠蹇卷 佼杲哿果賈寡襦吭廣講礦景 憬耿九耆貢據顧蓋怪儉貴拊 良貫諫慣建絹叫教誥箇過駕 卦誑廣絳敬救蕒禁弓雞皆干 驍庚更局捥今甘監兼已解稭 皎梗錦感敢減檢供計戒榦更 巨紺鑑劔穀匆吉橘屈骨葛括 憂刮結厥覺豐各郭格號獲戟 昊急閤夾頰	ㄱ [k] (57 字)	弓雞皆干驍庚更局捥今甘 監兼已解稭皎梗錦感敢減檢 供計戒榦更巨紺鑑劔穀匆吉 橘屈骨葛括憂刮結厥覺豐各 郭格號獲戟昊急閤夾頰
		空區開恢困坤寬慳牽圈敲 尻珂科呖誇羌匡康卿鞦丘彊 孔去苦愷魁跬梱懇款犬遣 巧考可穎跨忼壙馨糗口控去 庫慨快舛喟敲困硯券譴竅敲 犒軻課骼跨亢曠慶糗寇穹谿		ㄱ [k'] (48 字)
溪	ㄱ [k'] (118 字)	空區開恢困坤寬慳牽圈敲 尻珂科呖誇羌匡康卿鞦丘彊 孔去苦愷魁跬梱懇款犬遣 巧考可穎跨忼壙馨糗口控去 庫慨快舛喟敲困硯券譴竅敲 犒軻課骼跨亢曠慶糗寇穹谿	ㄱ [k]	恐

		措看橈阮傾欽堪嵌謙起錯頃 肯坎歎恐器培看勸闕歎欠酷 鞠乞屈窟渴闊褐闕挈却躑恪 廓客躑隙喫閔泣榼恰篋恐	(1 字)	
群	ㄱ [g] (56 字)	窮奇渠葵勤羣乾權橋伽茄 癩彊狂劫瓊求琴箏技巨跪窘 近鍵圈糾彊迂白噤儉共芝瞿 匱悻僅郡倦健嶠狂強競舊紆 局漏謁傑噤噓劇及笈	ㄱ [g] (18 字)	葵橋瓊琴箏糾噤儉共局漏 謁傑噤噓劇及笈
疑	ㅇ [ŋ] (72 字)	顛魚吾皚危銀垠峴顏頑虬 敖莪訛牙印凝隅吟岳噉語五 隗听眼巘阮斲我● ¹³⁾ 雅瓦仰 聊偶吟頷隄御誤艾外睚魏愁	ㅇ [ŋ] (1 字)	仰玉孽月業
		岸玩亂鴈願澆樂傲餓訝●仰 柳迎硬偶吟齷玉乞兀孽孽月 域業	ㅇ [Ø] (42 字)	垠峴顏頑虬敖莪訛牙隅吟 岳噉听斲我●瓦偶吟頷睚 愁岸玩亂鴈樂傲餓訝●偶吟 齷乞兀孽域雅眼

【표2】 설음의 정·속음 대조표

	자 모	정 음	예자	속 음	예자
설	端	ㄷ	東氏都堆敦端單顛貂刀	ㄷ	氏貂登耽儋邸等統膽點

13) 각 표의 例字에서 “?”로 표기된 것은 원문에 글자가 있으나 잘 알아볼 수 없는 글자에 표시하였
고, “●”로 표시한 것은 원문에 글씨가 없는 글자들에 한하여 표시하였다.

14) 원본을 확인해본 결과 卷第08上聲11銜 의 자모 端 역음 ‘던’ 에 해당하는 예자 典에는 반절표기가

ㅍ	[t]	多爹當丁登兜耽儋董邸覲 [t] 短亶典典 ¹⁴ 倒瘴朶打黨頂 (64 等斗統膽點凍帝妒帶對頓 字) 鍛旦殿弔到瘴當釘嶝鬪擔 店篤殺咄掇筴的德答喋	[t] (23 字)	帝嶝擔店篤殺咄掇筴的德答 喋
	透 [t']	通梯胎噉湍灘天禡饜佗 ㅍ 他湯聽偷貪添統體土疇坦 [t'] 腆討妥儻鞋禱忝痛替兎泰 (56 退褪炭瑱糶唾儻聽靈透探 字) 賧栳禿脫闌獺鐵託逖忒錯 榻帖	ㅍ [t'] (24 字)	梯禡佗他貪添體禱忝替 探賧栳禿脫闌獺鐵託逖忒錯 榻帖
	定 [d]	同題徒臺隕屯團壇田迢 ㅍ 甸駝唐堂庭騰頭覃談恬動 [d] 弟杜待鍬盾斷但殄窳道挖 (56 蕩挺鋇禪啖簞洞第度代定 字) 隊鈍豕憚電調導惰宥定鄧 豆淡贖突奪達耋鐸狄特沓	ㅍ [d] (24 字)	題迢騰覃談恬弟窳禪啖 簞第定鄧淡贖突奪達耋鐸狄 特沓
	泥 [n]	農泥裯奴能紉難年饒獠 ㄴ 那拏娘囊能寧南南黏癩你 [n] 女弩乃餒煖椒撚輓烏撓腦 (70 娜灑凜紐穀?滄膿泥女怒 字) 柰諉嫩悞難碾溺鬧臍奈灑 甯狃糶賃念黏腩暱訥捺納	ㄴ [n] (24 字)	泥那能南南黏你烏娜滄 泥念黏腩暱訥捺納涅諾匿納 ●聶

			涅諾匿納●聶 龍陵離間盧來雷鄰倫論 鸞爛蓮孿聊勞羅良郎令稜 留樓林婪藍廉隴里呂魯壘 嶙卵嬾輦鬻了老裸兩朗冷 嶺柳塿壘覽斂弄利慮路 賴類吝論亂爛練戀料勞邏 諒浪令稜溜漏臨濫斂祿栗 律硯掎刺列劣略洛歷勒立 蠟獵		
반 설음	來 [1]	ㄹ [1] (89 字)		ㄹ [1] (34 字)	龍離聊稜林婪藍廉里了 冷塿壘覽斂利稜濫斂祿栗律 硯掎刺列劣略洛歷勒立蠟獵

【표3】 순음의 정·속음 대조표

	자모	정음	예자	속음	예자
중 순음	幫 [b]	ㅂ [b] (65 字)	悲窳逋杯賓奔般班邊 森包褒波巴邦彭兵絳砒 琫彼補罷本稟版扁表飽 寶跛把榜丙貶秘閉布拜 背債奔半徧佞豹播霸謗 榜柄棚窆卜必不撥八鼈 博百檠壁北彪	ㅂ [b] (29 字)	悲窳杯奔般森絳砒彼本 表貶背奔半榜棚窆卜必不 撥八鼈博百檠壁北
	滂	ㅃ	紕鋪丕繽歡潘攀篇漂	ㅃ	丕歡潘攀漂烹縹配噴判

없었음.

	[p']	[p'] (46 字)	胞頗葩滂烹娉庀普品 縹頗剖譬鋪派配噴判襁 盼片勳砲破怕滂胖聘撲 匹泐潑●朴拍僻	[p'] (18 字)	撲匹泐潑●朴拍僻
	並 [b]	ㅁ [b] (54 字)	蓬皮蒲排裴頻盆盤瓣 縵瓢庖嬖婆杷旁彭平裒 陸簿琲呷牝伴辯標鮑抱 棒●竝避步敗沛仝畔瓣 便驃暴罷傍病僕彌孛跋 別靨白關匄	ㅁ [b] (20 字)	裴盆盤瓢彭琲呷伴標沛 仝畔僕彌孛跋別靨白匄
				ㅍ [p'] (1字)	關
	明 [m]	ㅁ [m] (69 字)	蒙稟迷模埋枚民門瞞 蠻眠苗茅摩磨麻茫忙盲 明繆謀蠓米姥買美泯懣 滿免眇卯麼馬莽猛皿黽 茗母鏐夢寐暮賣妹悶縵 慢麪妙貌磨禡滌孟命戊 謬木密沒末昧減莫陌覓 墨	ㅁ [m] (28 字)	迷枚門瞞苗盲米美懣滿 眇猛鏐寐妹悶縵孟木密沒 末昧減莫陌覓墨
순 경음	非 [f]	ㅍ [f] (25 字)	風霏敷芬翻芳捧斐撫 紛返髣缶賄費赴番販訪 副不福拂髮法	ㅍ [f] (10 字)	芬翻紛返番販福拂髮法
	奉	ㅍ ㅍ	馮肥扶汾煩房浮凡輔	ㅍ ㅍ	汾煩凡憤范分飯梵伏佛

	[v]	[v] (24 字)	憤阜范鳳附分飯縛復梵 伏佛伐縛乏	[v] (13 字)	伐縛乏
	微 [w]	ㅁ [w] (18 字)	微無文亡忘望尾武吻 晚罔未務問萬妄勿韃	ㅁ [w] (5 字)	文吻問勿韃

【표4】 치음의 정·속음 대조표

	자 모	정 음	예자	속음	예자
치 두음	精 [ts]	ㅈ [ts] (90 字)	宗縱贄齎疽租哉囉厘 津尊鑽箋鐫焦遭嗟將臧 精增啾鰈簪尖總憇子濟 沮祖宰觜盡擗纂僂翦湫	ㅈ [ts] (32 字)	縱贄齎焦增簪尖總子濟 湫寔縱恣霽甌僂足聖卒卒 緝撝節爵作積卽則涓帀接
			早左姐獎駟井酒走寔糴 縱恣霽沮作再醉晉俊焮 鎗鑽贊薦醜竈左借將葬 甌儼奏浸僂蹙足聖卒卒 緝撝節爵作積卽則涓帀接	ㅈ [ts'] (1 字)	蹙
	淸 [ts']	ㅊ [ts'] (76 字)	恩雌妻趨麤猜崔親遂 村餐千詮欸操蹉鏘倉淸 秋侵參僉此泚取采漼趨	ㅊ [ts'] (29 字)	雌妻欸侵參僉泚悄寢慘 次切竄躐參塹族七焮卒撮 ●切錯鵠刺緝雜妾

			忖淺悄草瑳且搶蒼請趣 寢慘認次切覷措榮翠親 寸竄粲蒨緥隋操踣倩躡 湊沁參塹蔴七煖卒撮● 切錯鵠刺緝雜妾)	
	從 [dz]	ㄸ [dz] (72 字)	叢從疵齊徂裁摧秦存 攢殘前全樵曹醞牆藏情 繪曾蠶潛薺聚粗在皐盡 鱗撰棧瓚踐騰阜坐苴奘 精歎槩漸從自劑聚祚在 萃盡攢瓚荐賤嚼漕剉坐 匠藏淨贈就暫族疾峯嶽 絕截嶠昨寂崩集雜	ㄸ [dz] (29字)	從疵齊樵繪蠶潛薺撰歎 槩漸從自劑贈暫族疾峯嶽 絕截嶠昨寂崩集雜
	心 [s]	ㄸ [s] (89 字)	松斯西胥蘇鯢雖辛苟 孫酸散先宣蕭騷些襄桑 斛星僧脩修湫心毳三鈿 竦死胥髓筍損算散銑選 篠掃姿鎖寫想顙省滂叟 糝糝送四細絮素塞歲信 峻異筭散霰選嘯噪些瀉 相喪性秀湫三速夙悉恤 率薩屑雪削索昔塞霽跂	ㄸ [s] (34字)	松斯西蕭斛僧心毳三鈿 竦死筍篠糝糝四細嘯三速 夙悉恤率薩屑雪削索昔塞 霽跂
	邪 [z]	ㄸ [z] (26	詞徐隨句涎旋邪詳祥 錫尋爛似敘象頌遂殉燼 羨旋謝岫續席習	ㄸ [z] (8字)	詞尋爛似頌續席習

정 치음	照	字)	中支知諸齋佳眞諄臻 踰鐘專昭嘲櫨樞遮章張 莊爭征周鄒斟簪簪腫紙 主阻捶軫準醜剗展沼爪	ㄷ [ʧ] (38字)	中支知昭莊斟簪簪腫紙 沼枕斬颯衆寘智壯撞諍占 祝質宙櫨札晰拙茁浙灼捉 窄隻戢執筭讐
		ㄷ [ʧ] (92字)	穌者掌拯帚擻枕斬颯衆 寘智著詛債惴震稔戰囁 照罩抓詐蔗障壯撞諍正 祝縞枕譜蘸占祝質宙櫨 札晰拙茁浙灼捉窄隻戢 執筭讐	ㄷ [ʧ'] (1字)	蘸
		ㄷ [ʧ'] (89字)	充差摛樞初差吹瞋春 挺穿昭謙又差車昌瘡崢 裡抽擻琛櫨檐寵齒杵楚 趾莖揣●黻產闈舛燭姤 禪頰?逞醜瀋疹蹠詔翫翹 胎廁掣處楚嘍吹藐趁篡 鏹禪釧鈔趁咤唱創塤靚 瞳稱臭筵識闖檐祝叱出 察歆徹綽妮坼尺測蟄舌	ㄷ [ʧ'] (36字)	充差摛昭瘡崢琛櫨檐寵 齒揣疹蹠詔翫翹胎廁掣創 靚檐祝叱出察歆徹綽妮坼 尺測蟄舌
牀	牀	字)	崇蟲馳除豺垂陳榛潺 椽蟬潮巢槎查茶常牀長 椴儉成儔愁岑沈讒重豸 ●紉撰篆趙槎丈瑒紂朕 湛仲治滯筋助砦墜陣棧	ㄷ [ʒ] (63字)	從疵齊樵繪蠶潛齋撰歎 槩漸從自劑贈暫疾疾峯嶽 絕截嚼昨寂崩集雜捷例字 蟲馳潮牀椴儉岑沈讒重豸 趙朕湛仲治滯滌湛讒逐秩
		ㄷ [ʒ] (77字)	崇蟲馳除豺垂陳榛潺 椽蟬潮巢槎查茶常牀長 椴儉成儔愁岑沈讒重豸 ●紉撰篆趙槎丈瑒紂朕 湛仲治滯筋助砦墜陣棧	ㄷ [ʒ] (1字)	瀋
		ㄷ [ʒ] (77字)	崇蟲馳除豺垂陳榛潺 椽蟬潮巢槎查茶常牀長 椴儉成儔愁岑沈讒重豸 ●紉撰篆趙槎丈瑒紂朕 湛仲治滯筋助砦墜陣棧	ㄷ [ʒ] (1字)	瀋

			綻饌纏傳召權乍狀仗滌 鄭銍驟胄鳩湛讒逐秩● 輒箸濁宅擲蟄雪腓		●輒箸濁宅擲蟄雪腓
	審	ㄸ 〔ʃ〕 (90 字)	春施書蔬筵衰申莘刪 ●羶燒梢沙奢商霜生聲 收搜深森纖衫苫始水暑 所數灑哂濟汕少稍灑蓓 閃試世恕疏曬稅舜訕扇 少稍嘎舍餉淙生聖狩瘦 滲深擻苫叔縮失率瑟殺 刷說設刷鑠朔索釋澀敵 攝	ㄸ 〔ʃ〕 (43字)	春施衰燒霜生深森纖衫 苫始水少爽省審瘁閃試 世淙生擻苫叔縮失率瑟殺 刷說設刷鑠朔索釋澀敵攝
	禪	ㄴ 〔z〕 (42 字)	時殊誰辰純鋌韶蛇繩 謹市墅豎蜃善紹社上受 甚侍誓樹瑞慎順繕邵射 尙盛授甚孰術舌浞杓曠 石寔十	ㄴ 〔z〕 (17字)	時韶謹市紹甚侍誓孰術 舌浞杓曠石寔十
반 치음	日	△ 〔ʒ〕 (45 字)	戎兒如癢痿人然攪饒穰 仍柔壬髻冗耳汝紫水忍盾 輒擾惹壤蹂餌冉二孺汨刃 閏懷讓認輶任染肉日熱● 若入	△ 〔ʒ〕 (20字)	戎兒饒仍壬髻冗耳擾餌 冉二認染肉日熱●若入

【표5】 후음의 정·속음 대조표

자 모	정음	예자	속음	예자
影	ㅇ [ʔ] (112 字)	翁邕伊娃於烏哀煨因氳溫 恩安剡彎黴煙淵么坳鑿阿渦 鴉窠央汪英泓憂謳音諳淹菞 倚偃塢矮鬣猥蘊隱隱盪縮宛 偃杳拗媼婀媠啞軼枉塊潑影 黝歐飲晦黯奄瓮雍意飮汗愛 嘎隘穢印醞按晏腕宴怨耍拗 奧浣亞快盎映瑩應漚幼蔭暗 齧厭屋郁一鬱媼遏幹軋謁抉 渥獲惡厄益	ㅇ [ʔ] (34字)	娃安么阿音諳淹杳婀潑 飲晦黯奄按瑩暗齧厭屋郁 一鬱媼遏幹軋謁抉渥獲惡 厄益
曉	ㅎ [x] (106 字)	烘胸羲虛呼哈灰睢熏欣昏 歡嘆儂軒暄鴉哮蒿訶呀花華 化靴香荒缸亨兄錡馨興休歎 杵兕喜許虎海賄毀噓罕顯炬 曉好火聞響悅訶朽吼闕險烘 匈戲血噓諄誨睢豐豐訓昏漢 喚獻絢歎孝耗貨呵罇化向況 龔興顛吼脅焯畜盼喬忽喝豁 瞎血歎諳霍懼郝赫畫號殞	ㅎ [x] (29字) ? (1字)	嘆鴉亨歎杵曉闕險漢況 脅焯畜盼喬忽喝豁瞎血歎 諳霍懼郝赫畫號殞 罕
匣	ㅎ [ɣ] (111 字)	洪雄兮胡諧懷孩回魂痕寒 桓還閑賢玄爻豪何和遐華杭 黃降行橫形侯含酣咸嫌頰倅	ㅎ [ɣ] (34字)	兮諧寒橫含酣咸嫌倅蟹 頰謙系械翰憾陷檻穀歎覈 鶻曷活轄猾穴纈穫鶴學檄

	字)	戶蟹夥駭亥混狠旱緩限峴泫 散皓荷禍下蹀沆晃項杏●迥 悻幸厚頡謙哄系護害械壞潰 慧恩恨翰換患盱覓現眩效號 賀暇晝吭巷行橫脛候憾陷檻 穀歛覈鶻曷活轄猾穴纈穫鶴 學檄劬或)	劬或
			○[Ø] (1字)	桓
			ㄷ[ɸ] (1字)	夥
			ㄱ[g] (1字)	蹀
			ㅋ[k] (1字)	●
			? (2字)	旱緩
喻	○[Ø] } (57 字)	融夷倪于涯爲雲延員堯耶 陽王榮盈尤淫鹽勇以與引隕 衍野養往穎永有琰用異豫叡 胃孕運硯耀夜漾王詠孕宥豔 育逸聿颯曳藥諤額繹逆	○[Ø] (17字)	倪堯榮淫鹽永琰詠豔育 逸聿颯曳藥諤繹
			△[3] (1字)	叡
			○[ɳ] (2字)	額逆

Abstract

"Hong Moo Jung Woun Youk Hun"

An aspect of correspondence between 'Jung-um' (an original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and 'Sog-um' (a popular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in the consonant of Chinese character.

Kwon Eun-Sun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Joseon dynasty had put stress on the relation with China. They set up 'Sa-youk-won' (the government office which take charge of the works of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left a lot of research data and works of translation.

Especially Sejong the Great made phonology scholar, Sin Suk-Joo and Sung Sam-mun compile "Hong Moo Jung Woun Youk Hun" which show the reading of Chinese consonantal character in "Hong Moo Jung Woun" (the phonology book which was compiled at the first king of Ming dynasty, 1375) in Hangeul.

Furthermore, he tried to contribute to the teaching the Chinese language by having a scholar Whang Chan revise the book and widely extended the education.

*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onsonant in "Hong Moo Jung Woun Youk Hun"

(1) 'Young-sung-mo-wha' (changing into zero phonetic value or becoming soundless) of '의'(ei) consonant.

(2) Changing into voiceless sounds from voiced sounds.

But there is an exception among the Molar sound.

(3) Changing into a voiced consonant (Cha-chung-um-wha) of the Lingual sound 'jung'.

(4) Changing into an unvoiced consonant (Jun-chung-um-wha) from voiced consonant among the Dental sound.

Key Words : Hong Moo Jung Woun Youk Hun, Hong Moo Jung Woun, Sa-youk-won, works of translation.